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

-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

이 지 현* · 양 속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exualit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 Focusing on the Feminism -

Ji-Hyoun Lee* · Sook-Hi Y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6. 1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ress the sexuality of feminism in the modern fashion. As for the methods of research, literary research was carried out using reference based on feminism history and sexuality concept and demonstrative analysis was undertaken using 2000's collections photographs. In the results of that, the sexuality of gender resistance feminism is featured by three key words: sado-masochism sexuality, bi sexuality and hetero sexuality. First, sado-masochism sexuality shows fetish look and dominatrix look shown in the strong attitudes. Sado-masochism sexuality is setting fetishes such as mask, whip, chain, metallic materials and tight leather boots. Second, bi sexuality presents mannish look of soft and feminine style's slim pants suit with ruffle, flounce and decorated detail blouse. and fetish look wearing of sexual symbol clothes such as corset and bustier. Third, hetero sexuality represent glamour look which exposure and emphasis of breasts, hips and other sexual symbols.

Key words: sado-masochism sexuality(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 bi sexuality(바이 섹슈얼리티), hetero sexuality(히테로 섹슈얼리티)

I. 서론

최근 '성(sex)'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 오던 성담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이미 페미니스트들은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고 섹슈얼리티(sexuality)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이러한 논쟁은 더욱 복잡해졌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성에 대한 억압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더불어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섹슈얼리티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논쟁적인 정치적 쟁점이며, 이러한 논쟁은 19세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를 여성 억압의 일차적 형태로 보든 아니면 여러 형태들 중 하나의 억압 형태로 보든,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성적 욕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는 넓은 의미를 갖는데, 성별 육체, 성적 욕망, 정체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항상 현재의 사회적 행동의 바탕이 되고, 다른 역할들이 여기에 기초를 두고 파생된다.

1980년대에 발전한 페미니즘 이론과 패션의 만남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었는데, 특히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의 결합은 성별화된 정체성의 문화적 구조물 사이의 연관성을 만드는 데 유익하였다. 페미니즘 이론은 한편의 섹슈얼리티, 다른 한편의 재현과 시각의 모든 분야 사이에서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일단 여성 패션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재현하는 분야로 지목되면 그것은 지배문화가 어떻게 여성성을 구성하고, 재현이 여성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패션은 여성적'차이'에 대한 안내 여행이며, 단순히 완성된 여성성에 대한 텍스트가 아니라 그러한 여성성의 형성에 대한 텍스트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로 페미니즘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섹슈얼리티를 정의하고, 섹슈얼리티의 범위를 페미니즘적 관점, 특히, 젠더 불

평등의 범주인 젠더 개혁(reform) 페미니즘, 젠더 저항(resistance) 페미니즘, 젠더 반란(rebellion) 페미니즘의 범주 중에서 섹슈얼리티, 폭력과 문화적 표현에서 여성이 받는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투쟁한 1960-1980년대 젠더 저항 페미니즘을 선택하였다. 또한 젠더 저항 페미니즘을 급진적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록을 살펴보았으며, 사진 자료는 2000년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고찰하여 섹슈얼리티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록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는 내적 현상과 외적 현상, 정신적 영역과 물질적 세계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한다. 초기의 과학적인 용례에서 섹슈얼리티는 에로티시즘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양성적(bi)', '이성애적(hetero)' 혹은 '동성애적(homo)' 등과 같은 접두사와 결합되면서 특정한 욕망을 지닌 인간 유형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었다.²⁾ 이 단어는 섹스에 관한 인류학, 과학, 사회학 연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진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으며, 이미 1800년대에 생물학과 동물학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존재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널리 사용된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이러한 의미는 왜 여성이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질병에 취약한가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의해 설명하려고 하는 1898년의 한 책에서 나타난다.³⁾ 본래 이것이 여성의 성적 행위를 감시 하에 두려는 시도와 연관 되어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문학을 보면 뚜렷이 드러나는데, 성적 쾌락을 갈망하는 여성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⁴⁾

섹슈얼리티는 성별 육체와 성적 욕망이 교차하지만 결국 분리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제안 할

수 있다.⁵⁾ 성별 육체와 성적 욕망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으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보면 성과학과 정신분석학이 있다. 성과학은 다양한 욕망과 성적 유형의 본질을 알고자 노력하는 과학이었으며,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적 현상들에 대한 공적인 관심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포함하는 도착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성과학이 창출해 낸 광범위한 용어는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성과학 이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 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정신분석학이다. 정신분석학은 섹슈얼리티가 재생산과 분리되어 이해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최초의 이론 체계였다. 정신분석학은 성적 욕망이 인간을 종속의 영속으로 규정지어 가는 생물학적 본능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에로틱한 쾌락의 기원을 유아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프로이트와 라캉은 인간이 어떻게 특정한 성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지를 이론화하면서 성적 충동의 조직화는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의식의 욕망을 관리하는 것이 때때로 힘든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중요한 발상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 페니스의 중심성과 페니스 선망 등으로 남근의 상징적 권력을 당연시하는 패러다임을 발전시켰다. 정신 분석학적 남근 중심주의는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다시 시작되어 이후로 줄곧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이렇듯 섹슈얼리티는 성별 육체, 성적 욕망,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한 사람에게 성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섹슈얼리티가 다소 유동적인 개념으로 쓰이며, 성행위로 제한되지 않는 개념임을 이해해야 한다.

2. 페미니즘의 유형과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제1물결의 페미니스트들은 투표권이나 참정권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싸웠고, 자신의 몸과 임신을 계획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두어 합법적 피임방법을 위한 투쟁이었다. 제2물결은 1945년 프랑스에서 시몬느 드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The second Sex)'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남성은 제1의 성이고, 여성은 항상 제2의 성으로 보브와르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2의 물결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행해진 페미니스트 운동의 부활을 일컫는다. 이때의 저항은 여성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는데, 여성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가 결여된 것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 섹슈얼리티, 노동의 영역들에 관해서도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성,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즉, 여자와 남자, 동성애와 이성애,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대립에 도전하는 주류에서 벗어난 페미니즘이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페미니스트 이론을 제3물결 페미니즘이라고 하며, 이 페미니즘은 다양한 성,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페미니즘 유형에 따른 젠더 불평등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이론들은 페미니즘보다는 페미니즘들로 명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페미니즘은 성 불평등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세 개의 넓은 범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는 젠더 개혁 페미니즘, 젠더 저항 페미니즘, 젠더 반란 페미니즘이 있다.⁶⁾ 젠더 개혁 페미니즘은 기존의 성별화된 사회질서의 구조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젠더 저항 페미니즘은 성별화된 사회질서 특히, 섹슈얼리티, 폭력과 문화적 표현에서 여성이 받는 억압과 착취에 대항해서 투쟁한다. 젠더 반란 페미니즘은 사람들을 두 개의 젠더로 나누는 기반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성별화된 사회질서 구조에 도전한다.

Ⅲ. 젠더 저항 페미니즘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젠더 불평등의 세 범주 중에서 1960년대-1980년대에 성별화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 가치와 믿음, 즉 젠더 이데올로기의 권력이라는 중요한 이론적인 통찰을 발달시켰으며, 섹슈얼리티를 다루었던 젠더 저항 페미니즘을 급진적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은 외설상이 아니라 성 차별주의에 집중하면서, 특히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hardcore pornography)⁷⁾는 이 상품을 만들어 내는 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로 남성 소비자로서 이루어져 점차 성장해 나가는 시장 내에서도 과도한 성적 확대의 형태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로빈 모건(Robin Morgan)은 1980년대에 ‘포르노그래피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라고 말한다.⁸⁾ 만일 포르노그래피가 강간을 유도하는 이론이라면, 그것은 남성들이 저지른 많은 야만적인 성 범죄에 있어서 분명히 도구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연합은 만일 페미니스트들이 포르노그래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활용한다면, 여성 섹슈얼리티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미칠 결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 연합은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성 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포르노그래피를 공격하는 것은 성인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성적 상품들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주장은 포르노그래피와 성적 불평등 및 성적 욕망과 포르노그래피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또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개념을 남성이 폭력과 성착취로 여성을 종속시키는 세계적인 제도라고 확대 규정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견해에서 보면 서구사회는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에게 성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많이 가하며 여성은 대부분 잠정적인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의 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비판적일 뿐 아니라 남성 지배적인 문화를 뒤집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서구사회의 남성적 가치가 갖는 모든 특성, 즉 객관성, 간격, 규제, 냉정함, 공격성, 경쟁을 포함하지만 바로 이것들이 전쟁, 가난, 강간, 구타, 아동학대, 근친상간의 원인이라고 닥하며, 양육하고, 협동하고, 교환하고, 몸, 마음, 정신을 관리하는 등 여성이 하는 일을 칭송한다.

따라서 급진적 페미니즘 정책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출산기술, 유방확대 수술, 성형수술과 여성 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여러 종류의 객관화를 비롯해서 매매춘, 포르노 등의 섹스 산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인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과 상이함을 인정하고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그 자체로 옹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남성복을 선택,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장적인 사회 통념에 무언의 적법성을 부여한다고 믿고, 전형적인 여성복이 젠더 역할에 있어서 하위성과 나약함을 암시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2. 레즈비언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한 분파로서 이성애와 전통적인 가족생활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프로이트가 이성애적 욕망이 좌절된 것을 강조했던 반면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동성애는 근본적인 이성애적 소망에 대항하는 방어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프로이트는 레즈비언리즘을 여성성 자체의 리비도 변화나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남성 성 콤플렉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여성 동성애적 특징이 가부장제 속에서 잉태될 수 있는 모든 섹슈얼리티의 재현, 성적 실천들 그리고 성적 관계들을 금지시키면서 가부장제의 편견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이론적으로는 특히 낭만적이고 성적인 이성애에 관

계가 본질적으로는 여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모든 주체적 여성들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가부장제에 의해 레즈비어니즘을 성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약화시키며, 동시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남성들의 피보호자들과 피종속인으로서가 아닌 그들 스스로 여성의 역사적 의미와 실존주의적 의식을 중심화 할 것을 제안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이성애는 억압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즈비언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성이 여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의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는 논쟁거리이다. 즉, 그 원인이 타고난 것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인지 혹은 특정 시기에, 심한 일이나 정치적 참여를 계기로 발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레즈비언 페미니즘 내의 또 다른 논쟁점은 페미니즘과 여성 동성애의 평등성과 비폭력적 에토스를 침해하는 여성들간의 사도 마조히즘 변태 성관계에 대한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영역에서 레즈비어니즘적 사도 마조히즘은 페미니스트의 성적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은 동일하고 또 불가피하게 가부장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적인 답변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과 동성애자들의 시민권과 사회적 존엄성을 위하여 싸우며, 여성들 간의 사랑을 정체성, 공동체, 문화로 변화시키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 어머니와 딸 간의 사랑과 여성의 문화를 칭송함으로써 여성들 간의 성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인정받는 삶으로 확장한다.

3.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행동방식에 대한 근본적 설명이 여성의 정신, 특히 여성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프로이트 개념들에 의존하여, 성별 불평등은 남성이 그들 자신들을 남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은 그들 자신들을 여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가 남성성을 여성성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간주하

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초기 유아기의 경험들에 뿌리박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신분석학 페미니스트들은 남근 문화 생산물에 남성의 공격성, 남성 사이의 경쟁, 여성이나 여성의 지배로부터의 도피에 관한 것들이 많다고 본다. 남근 문화에서 여성이 재현하는 것은 남성이 자신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남성, 즉 아버지같이 되기 위하여 억눌러야 하는 성적 욕망과 감정을 나타낸다. 문화적 생산물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남자의 시선은 여성을 잠재적으로 집어삼키는 어머니나 잠재적으로 거세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⁹⁾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원인은 여성의 정서에 대해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모순적인 요구와 잠재적인 거세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거부라고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이유는 정서적인 연대감에 대한 여성의 무의식적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성별화된 성격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즉 아이가 개인적인 정체성이 발달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려는 경향의 결과이다. 또한 프로이트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득되어지며, 이러한 남녀의 특성은 남녀가 공유하고 있는 바이 섹슈얼리티로부터 형성되며 남녀 양성은 모두 바이 섹슈얼리티 특질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페미니스트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일상생활의 관계에 적용했는데, 사회학자인 린 찬서(Lynn Chancer)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구성하는 정신분석학적 '명령사슬(chains of command)'을 사도 마조히즘 섹슈얼리티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남성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은 상사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마조히즘과 의존감을 느끼고, 상사들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학성으로 되겠다는 것이다.¹⁰⁾

다음의 <표 1>은 젠더 저항 페미니즘 이론을 급진적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으로 분류하여 이론과 관련 저서와 저서를 간단하게 도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1> 젠더 저항 페미니즘 이론

	이론	관련 저자와 저서
급진적 페미니즘	남성의 폭력과 포르노그래피 비판 가부장제 비판	로빈 모건(Robin Morgan), 이론과 실제(1980) 캐서린 맥किन(Catharine Mackinnon), 변경되지 않은 페미니즘(1987), 안드레아 드워킨(Andrea Dworkin), 포르노그래피(1991)
	여성 섹슈얼리티의 자유로운 표현	패트 캘리포아(Pat Califia), 페미니즘과 사도마조히즘(1981)
레즈비언 페미니즘	전통적인 가족생활 비판 강제적인 이성애 반대 양성에 정치	애드리안 리치(Adrienne Rich), 여성론(1976)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젠더 문제(1990)
	섹슈얼리티와 권력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1995)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성도착적 페티시즘 새디즘, 마조히즘	크라프트 에빙(Krafft Ebing), 성의 정신병리학(1886)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근 선망, 거세 콤플렉스	프로이트(Sigmund Freud), 페티시즘(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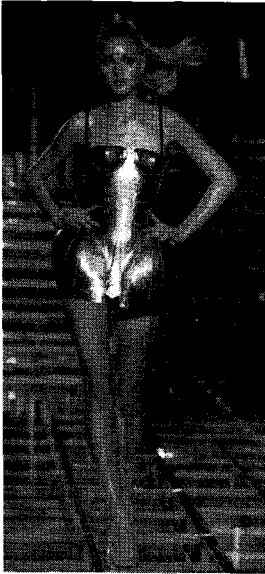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Ⅲ의 고찰을 바탕으로 2000년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를 1.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 2. 바이 섹슈얼리티, 3. 헤테로 섹슈얼리티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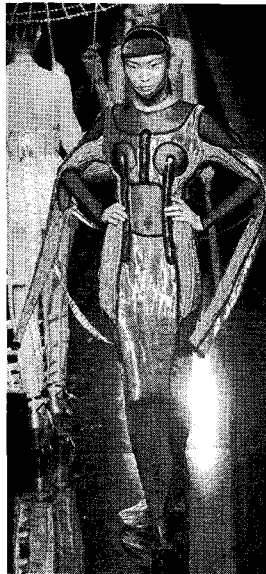
1.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

1886년 성의 정신 병리학에서 에빙(Ebing)은 특이한 성적 도착을 묘사하는데, '마조히즘(masoch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하여 이 용어는 수많은 변태 성욕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그는 피학 경향이 유행하는 풍조를 설명하기 위해 타락을 테마로 하여 연구 하였다. 여성이 예속된다는 종래의 역할 개념과 달리 스스로 여성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욕망이 드러난 것이다. 피학 성향은 성의 역할을 거꾸로 함으로써 여성을 확대하고 있는 남성의 죄책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피학적 경향이 있는 여성의 신발을 숭배물로 하는 페티시즘이 널리 퍼진 것은 여성에게 정복당하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 이런 도착 행위를 에빙은 굴욕을 바라는 욕망이 빚어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¹¹⁾ 따라서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에서 보여지는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sadomasochism sexuality)는 프로이트와 에빙이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성

도착을 가리키는 페티시즘이 패션과 관련된 페티시즘으로 표현된다. 패션은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페티시 대상으로 중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여성의 복식인 브레지어는 뽀족해지고, 광택이 날수록, 구조적이고 노출적일수록, 크고 유두를 부각시키고 장식될수록 페티시화된다¹²⁾. 2007 S/S Dolce & Gabbana <사진 1>에서의 코르셋과 가터 벨트 등은 대표적인 페티시적 숭배물로서 페티시 룩의 특징적 아이템이다. 2007 S/S Jean Paul Gaultier<사진 2>에서는 가슴 노출시켜 장식하므로서 성적 부위를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맥락 안에서 레즈비어니즘적 사도 마조히즘은 성적인 소망과 활동의 복잡성과 범위를 다시 취급한다. 레즈비어니즘적 사도 마조히즘은 폭력, 남자들, 남성 동일시, 강간, 포르노그래피와 도착에 대한 단순하고 일방적인 융합을 거부한다. 오히려 레즈비어니즘적 사도마조히즘은 실제로 또 다른 논쟁으로서 여성의 성욕과 기능의 문제를 다시 개방한다. 어느 면에서는 권력과 성욕에 관한 이 논쟁은 또한 언어에 관한 논쟁이고 또 특수한 기호의 상징적, 정치적, 상태에 관한 논쟁이다. 1980년대 사도마조히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토론은 그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 상이하고도 반대되는 용법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첫째는 여러 가지 가능한 레즈비언 성행위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주 빈번히 지배자로 이해되고 있는 남성과 복종자로 이해되고 있는 여성의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사진 1〉 페티시 룩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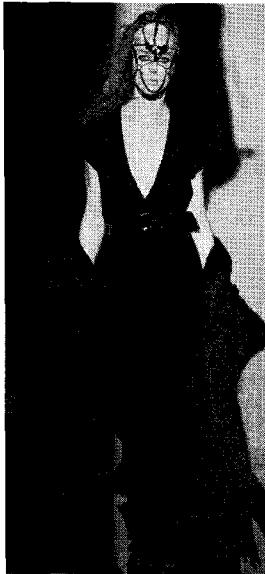
〈사진 2〉 페티시 룩14)



〈사진 3〉 도미나트릭스 룩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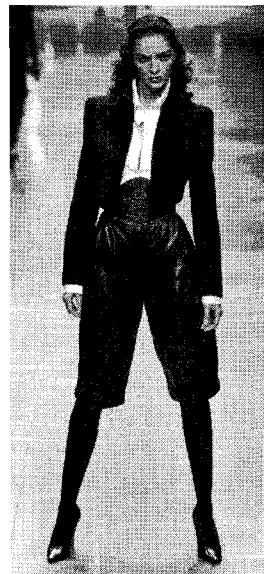
〈사진 4〉 도미나트릭스 룩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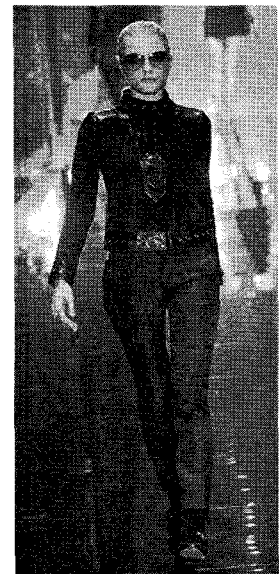
〈사진 5〉 도미나트릭스 룩17)



〈사진 6〉 도미나트릭스 룩18)



〈사진 7〉 도미나트릭스 룩19)



〈사진 8〉 도미나트릭스 룩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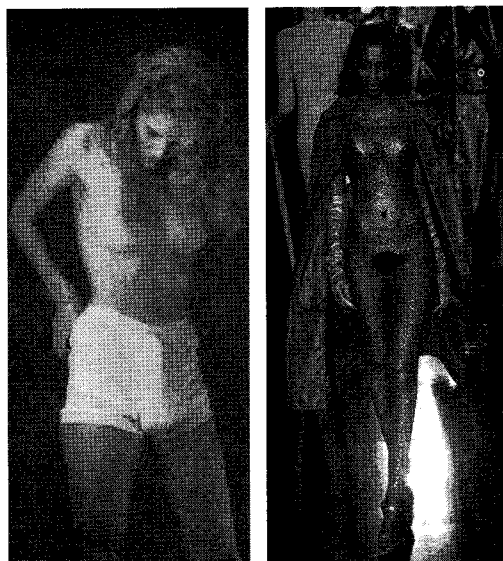
은유자로서의 사도 마조히즘이다. 그러나 이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의 핵심에는 섹슈얼리티를 권력과 폭력과 연결하는 분석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폭력과 권력의 지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

인 두 가지 수준에서 폭력의 매커니즘을 확인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레즈비언적 사도 마조히즘은 억압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섹슈얼리티, 권력과 폭력 간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심리학적 억압의 역사의 결과의 결합에 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육과 연결된 권력과 폭력은 더 큰 성적 쾌락과 그 쾌락에 대한 보다 큰 이해를 위하여 이용되고 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기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여성(fem)'역할을 하는 레즈비언들의 옷, 행위, 섹슈얼리티의 표현이 아주 여성적이었다면, '남성(butches)'의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들은 감정표현에 미숙하고 과장된 남성적인 모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두 역할을 다 하는 남자와 여자(butch-fem)의 역할을 번갈아 바꾸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레즈비언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성이 여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의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는 논쟁거리이며, 또 다른 논쟁점은 페미니즘과 여성 동성애의 평등성과 비폭력적 에토스를 침해하는 여성들 간의 가학 피학성 변태 성관계에 대한 것이다. 레즈비언적 페미니즘의 사도 마조히스트들의 출현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가부장제 아래의 남성의 성욕을 폭력과 여체의 상품화와 구체화와 연결시킨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의 분석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급진적 페미니스트에서의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에 보이는 패션 경향은 여성의 지배자 역할을 하는 도미나트릭스 룩(dominatrix look)이다(사진 3)(사진 4). 도미나트릭스 룩의 특징은 가죽, 비닐 바디 슈트, 마스크(사진 5), 채찍 등 페미니즘에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강한 여성의 지배자를 상징한다. 2006 S/S Alexander McQueen(사진 3)는 단단해 보이는 그물 형태의 가죽으로 장식한 블랙 드레스와 쇠로 된 팔찌는 강한 남성적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7 S/S Dolce & Gabbana(사진 4)는 가학의 상징인 채찍을 들고, 비닐 바디 슈트와 블랙 마스크로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를 제시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에서 나타나는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에서도 가죽 코트와 블랙 부츠의 2005 S/S Christian Dior(사진 6), 2006 S/S Alexander McQueen(사진 7), 2007 S/S Gucci(사진 8)과 같은 도미나트릭스 룩으로 표현되는데, 역시 블랙 가죽 소재에 강한 여성 지배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2. 바이 섹슈얼리티

여성의 몸은 사회적 과정에 의해 없어지는 것이



〈사진 9〉 남근을 가진 여성²¹⁾ 〈사진 10〉 페티시 룩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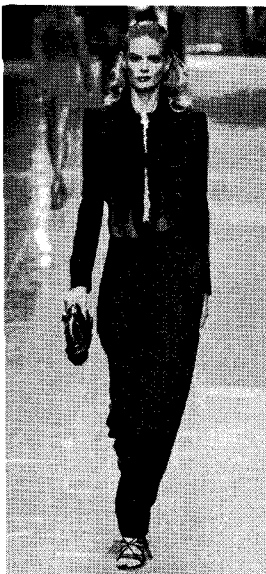
아니라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남성 생물학이 아니라 남성의 사회적 권력이고, 남성이 사회적 권력을 갖는 이유는 여성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표식, 즉 페니스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 환경에 처해 있는 남성의 공통점은 지배적 지위라는 특권이고, 그것의 상징은 남근이다.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이론에서 프로이트는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바이 섹슈얼리티(bisexuality)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고 했으며, 여기서 보여지는 페티시즘 또한 그의 특유한 개념인 '남근을 가진 여성(phallic woman)'으로 남근을 가진 여성은 모든 페티시스트들이 가지는 환상으로서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펠러스를 소유한 여성이다(사진 9). 이러한 특성은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관점에서 볼 때 성도착을 가리키는 페티시즘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근 선망, 거세 콤플렉스 등의 프로이트 이론을 중심으로 나타난 페티시 룩을 보여주며 패션에서 과장된 성기 표현과 패러디로 표현된다(사진 10).

또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에서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 결여는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일부이다. 그리고 어떤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여성 억압에 있어서 섹슈얼리티와 그것을 둘러싼 쟁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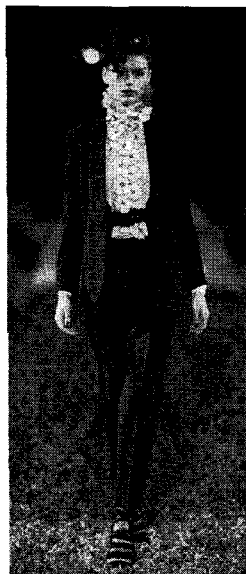
이 다른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들보다 덜 중심적인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섹슈얼리티는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섹슈얼리티는 권력의 한 형태이다.²³⁾ 영화, TV, 광고매체는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보여주며, 만연해 있는 성적 대상화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성을 사용하는 것을 부추긴다. 만약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그려진다면 그들의 지적이고 지도자적인 능력은 안 보이게 된다. 정치에 출마하는 여성은 매력적이어야 하지만 너무 성적으로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남성들과 동등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여성들의 욕구에 의한 남성적인 것과 같은

의복의 착용은 남성이 지닌 우월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착용은 외적 측면에서의 성차를 줄임으로써 여성 내부에 감춰져 있던 능력을 발현시키는 도구로 여겼다. 남성의 세계에서 인정되기를 원하고, 남자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기를 희망했던 여성들은 여성적인 의상 전략을 던져버리고, 남성 동료들의 의복 스타일을 흉내 냈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스커트를 입었지만, 의상의 대부분은 남성 슈트, 재킷, 셔츠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넥타이를 매는 경우조차 있었다. 화장이 얇어지고, 신발은 높지

않았으며, 서류 가방이 여성적인 핸드백을 대체했다. 남성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흉내 낸 권력 의상 차림은 지금까지 남성에 의해 수행되었던 지위와 권력의 일부분일지라도 얻으려는 상당수 여성의 욕망을 나타냈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에서의 매니쉬 룩(mannish look)은 남성들과 동등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여성들의 욕구에 의해서 남성과 같은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이 지닌 우월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 매니쉬 룩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패션으로써 나타난다. 과거의 권력과 부를 극명하게 표현했던 매니쉬 룩은 남성적인 영역인 직장에서 권위와 존경을 얻어내는데 기여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각진 어깨의 패드와 가슴을 가리는 빅룩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제했었다. 그러나 현대의 매니쉬 룩은 과거에 비해 많이 부드러워졌다 <사진 11><사진 12><사진 13><사진 14>. 과거의 전통적인 남성 슈트에서 응용했던 각진 어깨와 핀 스트라이프, 베스트, 셔츠, 타이 등은 사라지고,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피트된 슈트, 비치는 소재의 씨스루 블라우스, 리플 장식 등으로 여성의 부드러운 여성성과 권위를 동시에 제공한다. 2006 S/S Alexander Mcqueen



<사진 11> 매니쉬 룩²⁴⁾



<사진 12> 매니쉬 룩²⁵⁾



<사진 13> 매니쉬 룩²⁶⁾



<사진 14> 매니쉬 룩²⁷⁾

〈사진 11〉와 2007 S/S Yves Saint Laurent〈사진 12〉는 블랙 컬러의 전통적인 남성 재킷과 팬츠 슈트에 비치는 소재와 러플과 플라워 장식의 블라우스를 매치함으로써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니쉬 룩을 보여준다. 2006 S/S Valentino〈사진 13〉은 상징적인 남성 재킷의 각진 어깨 패드를 축소하고 드레이프된 슬리브 디자인으로 기존의 과장된 남성적 이미지를 탈피하였으며, 피트된 슈트로 바디라인을 부각시키면서 허리에 리본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부드러운 팬츠 슈트를 강조한다. 2007 S/S Louis Vuitton〈사진 14〉는 전통적 더블 브레스트 재킷의 허리 라인과 힘을 강조하고 러플 블라우스를 매치함으로써 매니쉬 룩에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남성 재킷과 블랙 컬러 팬츠 슈트에 여성의 곡선미를 보여주는 슬림한 실루엣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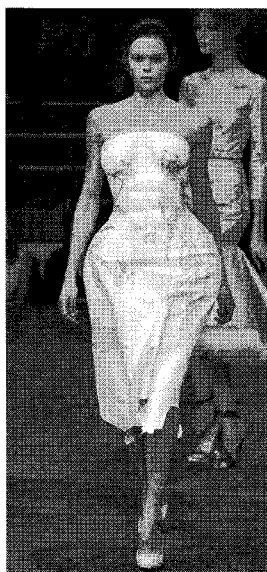
3. 헤테로 섹슈얼리티

헤테로 섹슈얼리티(heterosexuality)는 사회의 모든 기본 권력 관계의 근원으로 이해되는 가부장제를 언급함으로써 성별 불일치와 불평등을 설명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섹슈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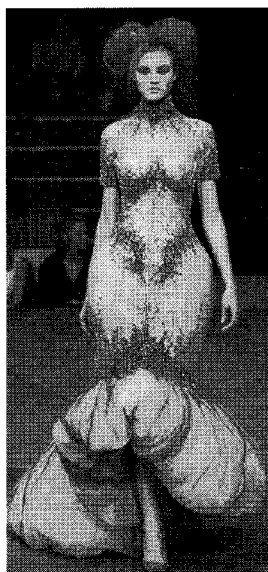
티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에서 중심적이라는 주장으로부터 페미니스트들은 헤테로 섹슈얼리티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실천이거나 혹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사실상 헤테로 섹슈얼리티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배 체계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1970년대 초반에 현대 게이 운동의 출현과 연루되었던 많은 레즈비언들과 게이들은 급진적인 페미니즘 배경에서 성차별주의라는 용어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헤테로 섹슈얼리티는 타고난 섹슈얼리티의 우월성이라는 관념에 따라 형성된 레즈비언과 게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고 정의 내렸다. 나아가서 성차별주의 개념이 성별의 차이와 불평등에 관한 급진주의적 페미니스트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헤테로 섹슈얼리티는 또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한 분파인 레즈비언 페미니즘과도 연결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 동질론에서 다시 남녀 이질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헤테로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성을 무시한 경향에 대한 반발과 반여성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섹슈얼리티로 여성의 주체성이 강조된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1980년대 중반에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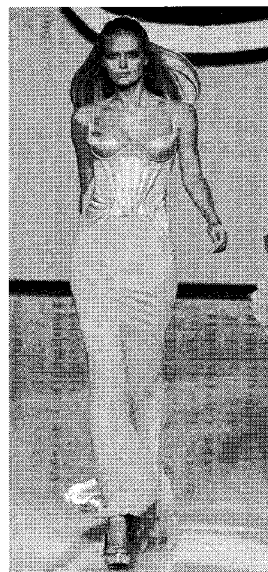
〈사진 15〉 글래머 룩28)



〈사진 16〉 글래머 룩29)



〈사진 17〉 글래머 룩30)



〈사진 18〉 글래머 룩31)

과 상이함을 인정하고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그 자체로 옹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성이 남성복을 선택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가부장적인 사회 통념에 무언의 적법성을 부여한다고 믿고, 전형적인 여성복이 젠더 역할에 있어서 하위성과 나약함을 암시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따라서 급진적 페미니즘에서의 헤테로 섹슈얼리티는 남녀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며 여성의 성을 찬양하고 재해석한 글래머 룩(glamour look)으로 나타난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여성성을 반영한 헤테로 섹슈얼리티에 나타난 글래머 룩의 특징으로는 여성의 성적 부위를 과장하여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거나 <사진 15><사진 16> 2007 S/S Alexander Mcqueen<사진 17>의 드레스처럼 성적 부위를 노출시켜 신비스럽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창조해낸다. 2005-6 F/W Christian Dior<사진 15>과 2007 S/S




Alexander Mcqueen<사진 16>의 드레스는 코르셋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 부위인 가슴과 힙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7 S/S Gianni Versace<사진 18>은 드레스를 인체에 밀착시키므로써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한다. 또한 글래머 룩은 과장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여성의 관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다음의 <표 2>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를 급진적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섹슈얼리티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V. 결론

패션은 생활 방식의 다양성과 남녀의 섹슈얼리티의 열망을 반영한다. 섹슈얼리티에서의 패션은 기호

<표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급진적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Image						
Point	여성 지배적이며 공격적 섹슈얼리티 강조	여성의 성적 부위를 과장하거나 노출하여 여성성 강조	여성의 힘을 표현하기 위한 지배자 역할 강조	여성의 부드러운 여성성과 권위를 동시에 제공	과장 및 노출 통한 남근 강조	전통적인 여성 복식의 과장과 장식
Item	비닐 바디 슈트, 마스크, 채찍, 그물, 가죽 벨트	코르셋 드레스, 코르셋 바디 슈트	가죽 코트, 블랙 부츠	슬림 팬츠 슈트, 씨스루 블라우스	바디 슈트	코르셋 가터 벨트
Detail	비닐, 광택, 가죽 소재, 블랙 컬러	레이스, 러플 장식, 비치는 소재	비닐, 광택, 가죽 소재, 블랙 컬러	러플 장식, 비치는 소재, 리본 벨트, 블랙 컬러	다양한 장식, 광택 소재	비닐, 광택, 가죽 소재
Look	도미나트릭스 룩 (dominatrix look)	글래머 룩 (glamour look)	도미나트릭스 룩 (dominatrix look)	매니쉬 룩 (mannish look)	페티쉬 룩 (fetish look)	페티쉬 룩 (fetish look)
Sexuality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 (sadomasochism sexuality)	헤테로 섹슈얼리티 (heterosexuality)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 (sadomasochism sexuality)	바이 섹슈얼리티 (bisexuality)	바이 섹슈얼리티 (bisexuality)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 (sadomasochism sexuality)

로써 그 의복이 표현하는 성적 욕망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태도를 보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은 남성적인 의상 스타일을 착용했고,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강조적 표현으로서 정성스럽게 손질한 메이크업, 매니큐어, 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하이힐을 신었으며 드레스와 스커트를 착용하는 반대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한때 대중들은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여성 동성애자들은 남성적인 옷을 입는다고 믿었으나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반대되는 성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섹슈얼리티의 기호로 작용하는 패션은 과거 크로스 드레싱이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이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섹슈얼리티는 패션과 페미니즘 두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페미니즘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정을 패션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패션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것이 성별화된 정체성 구성에 기본적인 행위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설정한 패션으로 여성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를 분석하고자 이론적 근거로 페미니즘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젠더 개혁 페미니즘, 젠더 저항 페미니즘과 젠더 반란 페미니즘 범주 중에서 젠더 저항 페미니즘인 급진적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관점에서 섹슈얼리티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패션에 나타난 룩을 분석하였다.

첫째,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의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헤테로 섹슈얼리티를 나타내는데, 패션에서 헤테로 섹슈얼리티를 남녀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며 여성의 성을 찬양하고 재해석한 글래머 룩으로 표현한다. 또한 반대적 의견으로 포르노그래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여성 섹슈얼리티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미칠 결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성 섹슈얼리티의 자유로운 표현을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를 여성이 지배자 역할을 하는 도미나트릭스 룩으로 나타낸다. 도미나트릭스

룩은 가죽, 비닐 바디 슈트, 마스크, 채찍 등을 의복에 적용시키므로 강한 여성의 지배자를 표현한다.

둘째, 섹슈얼리티를 권력으로 받아들이는 레즈비언 페미니즘에서의 사도-마조히즘 섹슈얼리티는 도미나트릭스 룩으로 표현되며, 이론적으로는 특히 낭만적이고 성적인 이성애 관계가 본질적으로는 여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여성들이 이성애적 성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모든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여성들과 동일시하므로 레즈비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모든 주체적 여성들을 포함하는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바이 섹슈얼리티를 매니쉬 룩으로 표현했다. 과거의 전통적인 남성 슈트에서 응용했던 각진 어깨와 핀 스트라이프, 베스트, 셔츠, 타이 등은 사라지고, 여성스러운 상징인 퍼트된 팬츠 슈트, 비치는 소재의 씨스루 블라우스, 러플 장식 등으로 여성의 부드러운 여성성과 권위를 동시에 제공한다.

셋째,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에서는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바이 섹슈얼리티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는 프로이드 이론과 비정상적인 성적 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성도착을 가리키는 페티시즘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근 선망, 거세 콤플렉스 등의 프로이트 이론을 중심으로 나온 페티시 룩을 보여준다. 바이 섹슈얼리티에서 페티시 룩은 성적 부위를 과장하거나 노출시켜 남근을 강조한다. 또한 성적 행동에 관한 이상의 하나로 새디즘이나 마조히즘인 사도마조히즘이 패션과 관련될 때 패션에서의 페티시즘은 더욱 두드러지며 이러한 성적 도착 행위들과 중복되어 나타나 페티시 룩을 보여준다. 사조 마조히즘 섹슈얼리티에서 페티시 룩은 전통적 여성 복식인 코르셋과 가터 벨트 등의 아이템을 비닐이나 가죽 광택 소재로 과장하거나 장식하여 페티시 룩의 특징을 강조한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섹슈얼리티라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을 주체로 패션 영역 안에서 시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젠더 저항 페미니즘 관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제한적 연구로 인해 앞으로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섹슈얼리티와 패션 관련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Evans Caroline, & Thornton Minna (1991). Fashion representation Femininity. *Feminist Review*, 38, pp. 48-66.
- 2) 조셉 브리스토투우. 이연정, 공선희 역 (2000). 섹슈얼리티. 서울: 한나래, pp.18-19.
- 3) Stephen heatt. (1982). *The Sexual Fix*. London: Macmillan, pp. 7-16.
- 4) *Ibid.*, p. 17.
- 5) 조셉 브리스토투우. 이연정, 공선희 역. 앞의 책, p. 18.
- 6) 주디스 로버. 최은정 역 (2005).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서울: 일신사, p. 37.
- 7) 하드코어(hardcore) 포르노그래피는 성교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며, 소프트코어 포르노 그래피는 성교장면을 위장하고, 프렌지(frenzy) 포르노그래피는 이상성애(異常性愛)를 다루는 것으로 분류된다.
- 8) Morgan Robin (1980). Theory and Practice: Pornography and Rape, in Laura Lederer(ed.). *Take Back the Night: Women on Pornography*. New York: William Morrow, p. 139.
- 9) 주디스 로버. 최은정 역. 앞의 책, p. 172.
- 10) Lynne S. Chancer (1992). *Sadomasochism in Everyday Life*. New York: Rutgers University Press, pp. 97-100.
- 11) 스티븐 킨. 이성동 역 (1996). 육체의 문화사. 서울: 의암, p. 190.
- 12) Steele, Valerie (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36.
- 13) 2007 S/S Dolce & Gabbana,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14) 2007 S/S Jean Paul Gaultier,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15) 2006 S/S Alexander Mcqueen,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16) 2007 S/S Dolce & Gabbana,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17) 2007-8 S/S Jean Paul Gaultier,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18) 2005 S/S Christian Dior,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19) 2006 S/S Alexander Mcqueen,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0) 2007 S/S Gucci,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1) Steele, Valerie (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2) 2007 S/S Jean Paul Gaultier,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3) Mackinnon, C. (1982). Feminism, Marxism, method and stste: an agenda for theory. *Signs*, 7(3), p. 533.
- 24) 2006 S/S Alexander Mcqueen,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5) 2007 S/S Yves Saint Laurent,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6) 2006 S/S Valentino,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7) 2007 S/S Louis Vuitton,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8) 2005-6 F/W Christian Dio,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29) 2007 S/S Alexander Mcqueen,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30) 2007 S/S Alexander Mcqueen,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 31) 2007 S/S Gianni Versace, 자료출처 www.firstview.com